월요광장

꿀벌에게 배운다

문 요 한
정신과 전문의

과연 민주주의는 인간만의 전유물일까? 꿀벌 사회는 흔히 여왕벌이 통치하는 왕정체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꿀벌 사회는 놀라울 만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꿀벌들이 미래의 보금자리를 결정할 때의 과정을 보자. 먼저 정찰대 벌들이 나서서 새 둥지에 알맞은 곳을 알아보러 다닌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벌들에게 후보지들을 안내한다. 그러면 일벌들은 후보지들을 방문해 보고 마음에 드는 최적의 집터를 선택한다.

그 수많은 벌떼들이 과연 어떻게 한 군데를 고르는 것일까? 꿀벌들은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면 날갯짓이나 엉덩이의 움직임 등 춤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결국 후보지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꿀벌들이 춤을 추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집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면 다른 후보지를 선호하는 벌들도 그 곳에 합류한다. 민주적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 비록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지만 놀랍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 한다. 이는 '데모스'('demos : 시민, 인민)라는 말과 '크라시'(cracy : 체제, 권력)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즉, 왕정이나 귀족정과 달리 권력의 주체가 극소수가 아니라 바로 절대 다수인 시민임을 의미한다.

다만 복잡한 현대사회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의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시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에 있다. 대표성이 클수록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시민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특권층 그리고 로비력을 갖춘 자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민의식이 약한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거꾸로 된 세상'이다.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왕정이나 귀족정과 다를 바가 없다.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고, 시민의 참여는 막히고, 부의 급격한 편재는 가속화되고, 온갖 특권과 불공정한 편법이 난무하며, 사회적 안전망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거꾸로 된 세상에 살다 보면 마치 이 불합리한 사회가 바꿀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지고 시민은 자신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고 만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꿀벌을 키우시는 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왕벌의 산란율이 떨어져 꿀벌 사회에 위기가 찾아오면 일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눈치 빠른 여왕벌은 다른 벌집을 찾아 도망치지만 그렇지 못한 여왕벌은 일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 분은 이러한 꿀벌들의 혁명을 '공살'(共殺)이라고 표현했다. 일벌들이 모여 여왕벌을 빽빽하게 에워싸게 되면 그 내뿜는 열과 압력에 의해 여왕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일벌들이 나서서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한 여왕벌을 제거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건강한 여왕벌을 새로 뽑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존속살해라고 볼 수 있는 잔인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다. 꿀벌들은 혈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이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는 집단적 선택이 있었기에 꿀벌들은 1억 년 가깝게 지구상에서 번성해 왔다. 그렇게 보면 일벌들은 평생 일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피지배자가 아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군주가 아니라 출산의 기능만을 맡은 몸집이 큰 '전문 대리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꿀벌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인은 바로 수많은 일벌들인 것이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도 공동체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하는 일벌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키는 '깨어 있는 시민'이 아니겠는가!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온 세상에 천명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은 공석에 있는 여왕벌을 뽑는 단순한 의미일 수가 없다.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지혜의 향연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 가자는 착공식의 자리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주체적인 일꾼인 것이다. 마치 일벌들처럼!

법조칼럼

교통사고 사건에서 적절한 배상

박 현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의 전체 재판부는 민사사건 합의부 및 단독, 형사사건 합의부 및 단독, 행정사건 합의부 및 단독, 파산사건 합의부 및 단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재판부 중에는 접수 수가 많은 사건을 다루는 전문 재판부가 있다. 민사 재판부에는 의료·건설·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담부가 있고, 형사 재판부에는 성폭력·부패·교통사고 전담부가 있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다.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피해자가 너무 심하다는 사건도 있다.

몇 년 전 30대 여성이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외견상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척추 부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했고, 현재도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여성은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험회사와 합의해 더 이상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합의 과정을 보니 나름대로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보상문제를 알아봤던 사실이 밝혀져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여성은 소송에서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하고 패소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 측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접근한다고 한다. 유리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힘을 써주겠다는 사람, 신체장해율이 많이 나오도록 병원에 힘을 써주겠다는 사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보험회사에 힘을 써주겠다는 사람 등등.

필자의 생각은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이다. 앞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손해사정인이라도 보험회사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나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으면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적절한 배상을 받았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신체의 주요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섣불리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변호사라고 모두 이 분야에 능통한 것이 아니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기 바란다)와 상의해 처리하기를 바란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배상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지만, 보험회사가 배상을 미루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가지급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A씨는 시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약간 밀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충격했다. 그 차에는 4명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4명 모두 치료를 받고 이 중 3명은 한방병원에 2주간 입원하고, 모두 수십만 원 하는 약까지 복용하였으며 범퍼를 새로 바꿨다. 억울한 A씨는 법원에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보니, 주차장에서 평행주차 중인 차를 미는 정도의 속도로 앞차를 충격했다는 것과 범퍼에는 흠도 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하라고 권했으나 피해자 측의 반대로 합의가 안 돼 결국 판결을 선고했다. 입원료와 식대, 수십만원하는 한약값, 범퍼수리비를 뺀 통원치료비 정도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억울한 분은 피해자와 싸우지 말고 법원에 호소하기 바란다. 이 사건에서 필자가 배운 것은 내차에도 블랙박스를 달아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실비보험의 경우에도 자주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10여 건의 실비 보험을 들고 나서 여러 병명으로 1년에 몇 개월씩 수년간 입원해 입원일당만 수억원을 받은 사례들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는 100% 환수된다. 형사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보험금이 환수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험회사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도 손실을 끼치는 것이니 윤리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사기가 된다.

사회 전체가 투명해지는 만큼 앞의 두 사례 중 어느 경우에나 사회구성원들도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기 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임 종 영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대한민국이 온통 하얀 벚꽃, 노랑 개나리, 붉은 철쭉으로 물들여져 눈부시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산과 들로 고개를 돌리면 파릇파릇한 초록색의 넘치는 생명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계절의 눈부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할 아픔이 있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물속으로 수장되었다. 단순히 하나의 대형 여객선이 침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침몰한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는 치유되지 않는, 아니 시간이 지난다 해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온 국민의 슬픔과 아픔으로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아픔을 담은 전시회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전시가 바로 그것이다. 미술관이 위치한 중외공원의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도 있겠지만, '세월오월' 전시를 보기 위해 학생들과 가족단위로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월 28일 전시 개막 이후 하루 1000명의 관람객이 넘게 방문한 날도 많다.

홍성담 작가는 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가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 전남 신안이며, 1989년에는 대하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슬라이드를 북한으로 보냈다하여 안기부에 끌려가 약 20일 동안 물고문을 당했다. 또한 안산 단원고 인근 그의 작업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학생이 수학 여행길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참변을 당한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홍성담 작가는 1980년 5월 항쟁 이래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그림들을 줄곧 그려왔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에 의해서 물속에서 아이들과 승객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3일간에 걸친 물고문으로 죽어간 대 학살극"이라고 규정했다.

전시되고 있는 세월호 관련 홍성담 작가의 작품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하나는 참사 당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물속의 상황들을 그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가족, 혹은 살아있는 자들의 시각이 아닌 희생된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은, 아이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서성이고 있는지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이 실재만큼 슬프고 고통스런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작품을 마주하는 관람객들은 조금은 희석되고 일상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미술관 도슨트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보이는 관람객들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홍성담 '세월오월' 전시는 3월 28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지만, 3월31일 오후 5시에 개막행사를 개최하였다. 놀랍게도 3월 31일 오후 5시 전시 개막행사를 개최하기 전인 3월 31일 새벽 3시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오후 1시경에는 3년 동안이나 물속에 있었던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 신항에 도착하였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뭍으로 올리기까지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며, 2014년 전시되지 못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을 미술관에 전시하기까지 또 비슷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아이들을 비롯해 304명의 죽음이 유신 독재로 회귀하려던 대한민국 호를 민주주의 길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4월의 아름다운 꽃처럼 민주주의를 활짝 꽃 피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장미대선' 민주화 이후 최고 투표율 보이나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5월 9일 치러지는 본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는 대선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시행 전부터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대 이상의 대박이었다. 최종 집계 결과 전국 평균 투표율은 26.06%로 지난 2013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단위 사전투표였던 2014년 6·4 지방선거(11.5%)와 지난해 4·13 총선(12.19%) 때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이번에 전남과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34.04%와 33.67%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선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촛불 민심'이 투표 열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호남 투표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유례없이 야권의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지방의원들까지 동원해 지지층의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기대 이상으로 나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사전투표율의 5배가량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겠다. 1987년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 중 역대 최고치인 13대 대선의 89.2%를 넘기는 쉽지 않겠지만,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0년 만에 80%대에 올라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내일이면 장미대선의 최종투표율이 나온다. 높은 사전투표율만큼 본투표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국가의 장래를 내 손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3년의 기다림 어서 빨리 끝났으면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처음 발견됐다. 이번 발견으로 세월호에서 유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류가 거센 맹골수도에서 유해나 유류품이 멀리 휩쓸리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미수습자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체가 침몰했던 해저 주변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곳을 40개 일반 구역과 2개 특별 수색 구역으로 나눠 4단계에 걸쳐 수색하고 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수중수색팀은 지난 5일 세월호 선미 부분이 맞닿아 있던 전남 진도 앞바다 특별구역에서 사람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길이 34cm의 유골 1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침몰 해역에서 들려온 유해 발견 소식은 참사 1천115일 만이다.

이날 발견된 뼛조각은 사람 뼈로 추정되지만 유전자 분석에는 한 달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선체 인양 43일 만이자 단원고 마지막 사망자 수습 920일 만에 들려온 이날 소식은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다.

뼛조각이 발견된 곳은 유실 방지를 위해 쳐 놓은 펜스 구역 내로, 침몰한 세월호 선미 객실과 맞닿아 특별 수색이 이뤄진 곳이다. 이미 한 차례 수중수색을 마친 곳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정밀하게 수색할 필요가 있겠다.

현장수습본부는 또 세월호 선내 수색도 계속하고 있다. 아무쪼록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단원고 학생(남현철·박영인·조은화·허다윤), 교사(고창석·양승진), 일반 승객(권재근·권혁규·이영숙) 등 아홉 명이 가족 품에 안길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無 等 鼓

'졸리 효과'

여성이 가슴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비록 전설상의 얘기지만 가슴을 일부러 자른 여성들이 있었다.

그리스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여전사로만 이뤄진 부족인 아마존(Amazon). 그들은 활을 쏘기 위해 한쪽 가슴을 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여자만의 부족으로 이웃 부족 남자와 만나 아이를 낳으면, 남아는 거세하거나 죽였다. 여아는 전사를 만들기 위해 활을 쏘기 편하도록 어릴 때 오른쪽 가슴을 도려냈다고 한다.

기원전 아마존족의 용맹과 신비감은 역사시대에도 이어졌다. 로마 네로 황제는 아마존 방패를 든 여경호원을 뒀고, 코모두스 황제의 왕비는 아마존 복장을 했다. 매년 12월엔 아마존의 달이라 해서 검투사 시합을 벌였다. 1500년경 스페인 탐험대는 남아메리카를 탐험할 때, 이 강에서 여자 궁수들을 발견하고 이 강을 아마존강이라 부르게 됐다.

전설 속에서는 강해지기(전사되기) 위한 조치로 가슴을 잘랐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슴을 절단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자의 변이를 확인하고 2013년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은 이후 이른바 '졸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유방암학회 유전성 유방암 진료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졸리의 예방적 수술이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2012년에 비해 2015년의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건수는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졸리 같이 예방 차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건수가 무려 5배에 달했다.

이번 주 일요일(14일 오전 8시30분)에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고, 광주일보 등 지역 신문·방송이 함께하는 유방건강 마라톤 '핑크런 광주대회(10·15㎞)'가 열린다. 참가비는 1만 원인데, 저소득층 유방암 환자를 위해 쓰인다고 한다. 그동안 17회를 운영하는 동안 총 33억여 원의 기금이 모였다. 이번 일요일엔 운동 삼아 월드컵경기장을 찾아보면 어떨까.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